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 릉 033.651.1385	대 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 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4.865.243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b>마</b>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b>타</b>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b>자</b>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b>파</b>
광 주 062.609.1300	<b>바</b>	<b>아</b>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5.2580	평 택 031.651.7701
<b>나</b>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b>하</b>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b>차</b>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창 원 055.283.9488	

# 한국 YWCA

- 이달의 생각**  
100년을 바라보는 YWCA 기록여성운동
- 특집**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 세계YWCA**  
제28회 YWCA 세계대회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 이달의 현장①**  
YWCA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YWCA OF KOREA

한국YWCA연합회는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가 시작되자 부산으로 옮겨간 후 세계YWCA와 미국YWCA의 지원을 받아 피난민과 전쟁고아, 이재민과 무의탁소녀 등 일반 구호사업을 펼쳤다. 6.25 동안 중 가족과 자산을 잃고 혼자서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업이었다.

부산YWCA에서 농촌 부녀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동래농예원을 한국YWCA연합회가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한국재건위원회(UNKRA)의 도움으로 동래농예원을 복구했다. 이곳에서는 전쟁 중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소녀들에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주고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서울YWCA는 직업여성들을 위한 숙소와 직업알선 사업을 제안하여 미국 개척교회의 헬프릿치 박사의 추천으로 동래농예원 사업에 대한 재정원조가 있었고, 이를 위해 캐나다 선교사 바브라 브로드푸트가 파견되어 기술적 지원을 했고 영국에서는 비올라 윌리엄스가 와서 농업교육을 도우면서 농촌부녀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갔다.

이곳에서의 교육은 농예, 재봉, 축산, 원예, 수예, 편물과 가내수공업, 요리 등을 가르치는 시설과 정상적인 사업 체계를 갖추는 등 불우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기술교육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표지이야기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8회 세계대회, 세계각국의 회원국YWCA와 평화를 이야기하고, 끈끈한 자매애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 목 차

04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11월의 한국YWCA   유성희
05	이달의 생각 100년을 바라보는 YWCA 기독교여성운동   합희경
06	월례이침기대회 공감, 사랑의 시작입니다   김진희
	<b>특집</b> <b>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b>
07	기획 ① 기후변화와 한국 탈핵운동   김춘이
09	기획 ② 기후변화와 젠더적 관점   강희영
11	세계YWCA 제28회 YWCA 세계대회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18	청년 청년 일자리 해법은 재벌개혁이다   은수미
20	평화 유엔 안보리결의(UNSCR) 1325 채택 15주년을 기념하며   조영미
22	탈핵 이슈와 동향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원 YWCA 활동보고   배유미
24	이달의 현장 ① YWCA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편집실
26	이달의 현장 ②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를 위한 YWCA · YMCA 공동기자회견   편집실
28	이달의 현장 ③ 2015 아태지역 금융 포용성 서밋 (Asia-Pacific Financial Inclusion Summit 2015)   홍수진
30	이달의 현장 ④ 2015년 다래교실 비전 페스티벌   편집실
32	원로에게 듣는다 이행자 후원회 이사장을 만나다   편집실
34	북한어린이돕기 회원YWCA 기부이야기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35	연합회 소식
38	회원YWCA 소식

### 11월 한국YWCA 주요일정

- 11월 24일(화)  
• 4분기 복지관장 연구모임
- 11월 26일(목)~27일(금)  
• 사무총장협의회 운영위원회
- 12월 1일(화)  
• 북부지역위원회 간담회  
• 제2회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 12월 3일(목)  
• 어린이집 원장 연수
- 12월 5일(토)~14일(월)  
• 파리 기후변화총회
- 12월 10일(목)  
• 성탄예배

# 11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11월 둘째 주는 전 세계 YWCA와 YMCA 회원들이 공동으로 지키는 기도주간입니다. 올해 기도주간은 “그 곳에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폭력과 테러의 위협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프랑스에서 비극적인 테러가 일어나 더 절실히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린 기도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 ‘우는 자와 함께 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픔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희망의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YWCA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에는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과 부회장도 역임하신 김수지 박사님, 젊은지도자상에는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YWCA의 자랑스러운 선배 지도력인 박에스터 선생을 기리는 의미로 제정된 상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으로 매년 여성지도자상 대상과 젊은지도자상, 그리고 다문화시대의 사회 통합에 기여한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특별상이 수여됩니다. 지난 해 대상을 수상하신 김영란 대법관의 진솔한 수상소감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올해 시상식도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에도 역시 깊고 따뜻한 울림이 참석하신 분

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중학생 때 다친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를 도우면서 돌봄의 가치를 알게 된 소녀 김수지의 모습부터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도 아픈 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그분의 일생은 ‘돌봄’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과 테러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간호사들과 상을 나누시겠다는 말씀에 참석한 이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하신 김 사무총장은 여성농민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기반으로 ‘언니네 텃밭’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분입니다. 생명농업의 의미를 지키고 여성농민을 돕기 위한 수상자의 노력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다래교실 비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150여 명의 1박 2일 서울 나들이 동안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여러 곳을 방문하는 진로 탐방과 문화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YWCA 생명꿈나무 돌봄센터 교사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신입어린이집 교사 훈련과 복지관 연수도 11월에 열렸습니다. 영덕 현지에서 주민투표지원 활동을 해주신 동부지역 회원YWCA와 연합회 탈핵운동센터, YWCA 불의 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목포YWCA와 서울YWCA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보다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곳곳에서 필요한 손길로 사랑을 전하는 지역의 회원 YWCA 활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과 기적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는”(롬 12:12) YWCA가 되기를 소망하며 11월에 YWCA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00년을 바라보는 YWCA 기독교여성운동

글 | 함희경 (여성(폭력)·성인지위원회 위원장)




전 세계 현존하는 NGO는 일천 만개에 이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만 12,755개이다. 많은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처럼 93년의 역사를 가진, 회원 중심의 여성 기독교단체는 쉽게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과연 YWCA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우리와 우리의 운동을 100년 가까운 시간동안 지속가능하게 하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을까?

아마 그것은 각 시대마다 선구자적 사명을 띠고 여성 지도자로서 운동을 이끄셨던 선배들의 리더십일 수도, 시대의 욕구에 선견지명으로 앞장서서 운동의 계획을 세우고 함께 Y를 이끌어 나갔던 실무자들의 리더십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먼저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움직이는 우리의 운동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YWCA를 어떠한 세상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YWCA 회원들의 기도와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기에 YWCA운동이 존재할 수 있었다.

교육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학문, 그리고 노련한 경험으로 YWCA가 유지되어 왔는데, 그것들만으로는 9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성경에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덩나의 포도원에서 맨손으로 힘센 젊은 사자를 찢었으며,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가 힘

을 잃어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혹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실 때 그가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셨을 때 그가 힘을 잃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의 연관성은 성경에서 비단 삼손뿐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으나,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더이상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

한국YWCA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임재가 있었기에 우리 회원들이 YWCA라는 하나님의 기관을 통하여 그 분이 주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처럼 YWCA의 회원들이 착하고 정직하고 남들보다 훌륭하게 일을 잘 해서 YWCA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존재한다기보다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 안에 YWCA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93년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YWCA 기독교여성운동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공감, 사랑의 시작입니다

글 | 김진희 목사 (안산대학교 교목)

##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분이 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긍휼하심이라 부른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행하신 수많은 치유행위들은 상처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들의 고뇌를 보여주는 작은 단서에 불과하다.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의 깊은 내장 속에서 솟아나오며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인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깊은 슬픔에 공명하셨다. 그분은 길 잃은 자들을 위해 스스로 길 잃은 자가 되셨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굶주리셨으며, 목마른 자들과 함께 목마르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고독의 끝까지 나아가셨다. 그 때문에 고독한 자들과 함께 고독하실 수 있었고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독의 힘을 제하실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다. 예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희망과 두려움, 환희와 외로움에 따라 진동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이는 곧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을 지니신 분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신다는 말과 같다. 예수님이 보여주신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무심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인간의 조건을 모두 끌어안고 우리 인간의 힘겨운 싸움 속으로 몸소 뛰어드는 하나님이다.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긍휼(compassion)이 아닌 경쟁(competition)이 삶의 중요한 동기임을 알게 된다.”

무척 도전적인 시각이다. 우리는 남보다 한발 앞서려는 경주에 발목이 잡혀있다. 사회적 지위 상승과 힘겨루기, 이기려는 욕구가 긍휼한 마음의 싹을 잘라버린다. 우리들 관계의 세세한 구석까지 미치는 이런 미묘한 경쟁심이 우리를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하심이라 부른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선대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이라 부른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자비하심이라 부른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것을 그분도 느끼실 것이다. 자비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름이다.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자연에게, 온 우주에 긍휼의 마음을 보내야 한다. 긍휼의 시작은 공감이다. 공감의 마음을 회복하여 이 가을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시기 바란다. 🙏

# 파리 기후변화총회와 우리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가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환경회의에서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된 이 기후변화 협약은 현재 19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글 | 김춘이 (기후행동 2015 사무국장, 환경연합 활동처장)

## 파리기후변화총회: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사람들은 2주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 칭한다.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로 지속되어 오던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2020년 종료되고 Post-2020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가 이때 논의되기 때문이다. 더 깊게는 더 이상 지구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제16차)에서 결의한 ‘2100년까지 산업화대비 섭씨 2도 상승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의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다가올 신기후체제는 두 가지 면에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된다. 선진국(경제전환국)에게만 책임이 부과되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모든 국가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감축’ 중심의 내용을 ‘감축, 적응, 재원, 기술, 능력형성, 투명성’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은 경제성장 중인 인도와 중국을 겨냥하며 그들의 의무감축 동참 없이는 기후 안정화는 없다며 두 경제대국의 의무 감축 동참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중국을 비롯한 G77국가군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산업국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감축목표를 두고 심했던 대립이 2013년 남아공 더반 총회(제19차 총회)를 기점으로

로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모든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applicable to all)’ 의 문구를 통해 미국의 동참을 견인했고, ‘협약 하(Under the convention)’라는 문구 삽입을 통해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 국가별 자발적 감축 통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회 제안

옥스팜을 비롯한 10개 국제시민사회 단체는 11월 말 ‘자발적 감축 기여방안에 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보고서(Fair Shares: A Civil Society Equity Review of INDCs)’를 통해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될 경우 2025년과 2030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 각국의 기여방안이 ‘섭씨 2도 상승억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기여방안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지구의 온도는 섭씨 3도 혹은 그 이상 상승하여 지구를 대재앙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평가에 기초한 그들의 정책 제안 중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가는 그들의 공정한 책임에 근거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진행해야 하며, 역사적 책임과 역량

# 기후변화에 여성의 참여와 젠더 통합적 관점 필요해

글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기후변화에 취약한 여성들의 삶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이 붕괴되고 말라리 아를 비롯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2030년까지 1억 명의 극빈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조사된 92개국 140만 명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1억 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농업파괴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 홍수 기근 태풍 같은 자연재해, 전염병을 비롯한 건강재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 세계 빈곤인구의 70%가 여성이다. 자연재해 시에도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역사상 규모가 큰 기상재해는 대부분 지난 20년간 발생했으며, 최근 10년간의 기상재해는 연간 7.4%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141개국에서 198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발생한 태풍, 지진 등 재해에 대한 통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성과 어린이 사망자가 남성의 14배에 달한다고 한다.

여성은 긴급 상황에서 아이와 노약자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피난하기 어렵고, 피난에 필요한 교통, 정보, 은신처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영을 배우지 못하거나 안전기술에 대해서도 소외되어 있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성역할관, 교육과 정보 부족 등이 여성의 피해를 더 증가시키고 있다.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경우, 총 에너지 사용의 93%~95%가 바이오매스이고, 실내 바이오매스로 인해 죽는 이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이다. 또한 식수와 연료 조달의 90%를 여성이 부담하고 있기에 신체에 가중되는 피해, 교육에서 소외되는 여아, 폭력에 노출 등 여성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더 먼 거리에서 식수와 연료를 조달해야 하므로 그 피해는 더하게 된다.

여성 비율이 높은 농업은 기후변화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토양침

이 있는 국가군은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 역량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역사적 책임이 다소 덜한 국가군은 지원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100%를 달성해야 한다.

2) 현재의 자발적 감축 기여방안은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시작점인 바, 향후 메카니즘 개발을 통해 5년 마다의 이행을 촉구하고 결국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로 전환하고, 회계 원칙과 같은 투명성이 있는 메카니즘을 개발한다. 또한 기후변화 피해국들에 대한 전 지구적이고도 효과적인 피해손상 메카니즘을 구축한다.

3) 지역공동체 에너지(에너지 민주주의)를 통한 청정하고 신뢰할 만하며 안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통해 빈곤을 퇴치한다.

## 지역공동체에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회로 100%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과 서로 맞닿아 있다. 한국 사회에서 화석연료 외에도 에너지 집중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핵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영덕 핵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는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역공동체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덕 거주 주민 3만5천명중 겨우 339명이 유치문서에서 서명한 것을 가지고 정부는 즉각 유치결정을 했다. 그리고 2만 7천명 유효투표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관리영역 밖인 부재자 투표 제외) 중 11,209명이 반대표를 던진 주민투표는 부재자수 포함 유효투표수의 3분의 1을 상회하지 못했다고 효력이 없다고 한다.


주민투표를 위해 방문한 영덕은 예뻐도 그리 예뻐 수 없었다. 특히 원전부지 예정지인 '천지마을' 풍경의 수

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986년 체르노빌을 겪고 도, 2011년 이웃국으로서 후쿠시마 사고를 옆에서 목격하고도 대한민국 정부는 겁이 없다. 이 아름다운 7번 국도를 모두 핵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다.

마침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대한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했다. 교황께서는 제2절에서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중략) 이러한 이유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셨다. 이 구절을 읽노라면 핵 발전으로 버림받은 땅과 물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기술자들은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든다. 그러나 우리는 파리에서 외칠 것이다. 핵 발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아니라고, 핵 발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면 사람도 땅도 방사능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기후변화 대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이다.

더이상 핵 발전으로 버림받은 땅과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월성 주민들과 영덕 주민들이 만나는 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엄마들과 월성 주민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울음을 국회로, 또 청와대로 전달하는 일 말이다. 그들의 울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탈핵을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에너지를 도모할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과 유실, 가뭄과 물 부족, 어류 및 농작물 재배선 이동, 해충과 전염병 등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여성은 농업 참여율은 높지만 토지 소유는 낮다. 식량 가격의 폭등은 가족 식량 조달의 부담을 지는 여성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한다. 여성농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에 대한 전략과 역량 강화도 시급히 요구된다.

**기후변화의 해결자로 여성의 역할 전환 필요**

우리는 여성이 기후변화에 대해 남성보다 더 취약해져 버린 현실이 자칫 피해자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의 풍부한 자연자원 관리 경험과 생명 감수성이 기후변화의 해결자로서 그 역할만 강화되고 책임을 전가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취약성에 초점을 둔 담론이나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인지 한 발 더 들어가 살펴봐야 한다.

여성과 관련된 특정한 이슈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 전반적인 정책과 의사결정, 프로그램에 젠더 통합적인 구성과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기후변화 담론과 정책대응의 젠더적 접근은 매우 미흡하다. 아니 부재한 현실이다. 안타깝고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 일이다.

최근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에너지 관련 기술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정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인데, 기억나는 여성 전문가가 있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NGO 활동가들은 몇 명 있는데 여성 연구자나 기업가를 만난 경험은 없다며 함께 놀라워했던 일이 있다.

성별 고정관념으로 혹은 불평등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기술과 일자리 접근권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한 사례이다. 눈을 돌려 이웃 나라를 보거나 더 먼 나라를 보더라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여성은 에너지 관련 담론, 정책, 기술, 산업, 기금 등과 같은 주제에 소홀했고 소외됐으며 불평등을 받고 있다.

소위 말하는 에너지 관련 ‘현장’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모두 여성이 있다. 밀양의 송전탑 투쟁 현장, 탈핵운동 곳곳, 대안에너지 공동체, 삶의 방식 전환을 일구는 일상에서도 여성이, 아니 여성만이 보인다. 소중한 자양분이며 값진 열매이며 희망의 씨앗이다. 더불어 이 불균형은 ‘기후변화 전반’의 여성 참여와 젠더 통합적인 구성과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다음 과제의 지시등임을 인지해야 한다.

여성들은 천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에 생계를 제공하고 소비자이자 생산자, 가족 관리자와 교육자로서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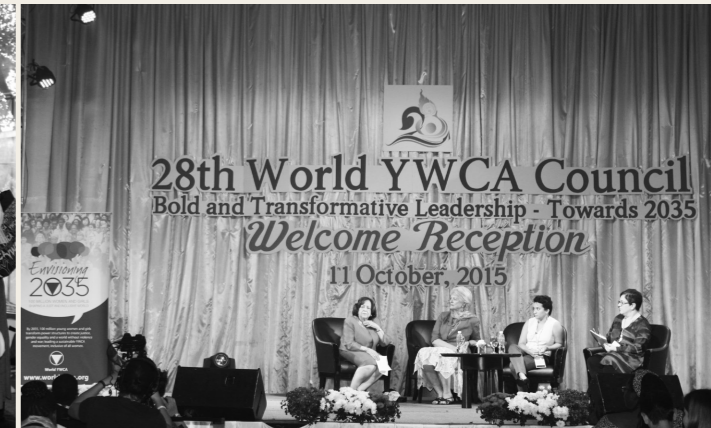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성장은 모든 인류에게,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여성들이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파리를 주목하면서 기후변화협약을 넘어 현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과 행동을 함께 하길 바란다. 소비가 늘어야 성장하고 성장을 위해 자원을 더 고갈시키고 환경을 더 망가지게 하는 사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현재의 우리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그야말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는 성장주의가 아니라 탈성장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신호이다. 이 신호에 여성들도 함께 응답하고 행동해야 한다. ♀

# 제28회 YWCA 세계대회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주도력”



더블유(W)를 손으로 그리는 한국YWCA 참가자들



제28회 YWCA 세계대회 환영 리셉션

제28회 YWCA 세계대회가 10월 11일(일)부터 16일(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73개 회원국YWCA에서 온 477명의 정식대표와 200여 명의 방청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4년간의 세계 YWCA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평가하고 2016~2019년의 정책과 예산, 전 세계 120여 개국의 YWCA가 함께 할 정책과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8개(아프리카, 아시아, 캐리비안, 유럽, 중동, 북미, 라틴아메리카, 태평양) 지역에서 후보로 등록한 이사회 가운데 18명의 이사와 6명의 부회장, 회계이사와 회장, 5명의 공천위원을 선출하였다.

특히 이번 제28회 YWCA 세계대회는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을 주제로 2035년까지의 세계YWCA의 운동정책과 방향을 선포하는 가장 비중있는 워크숍인 ‘비전수립 2035’(Envisioning 2035)가 진행되었다. 변화를 일으키는 담대한 2035 비전수립의 목표는 “2035년

까지 기존의 전 세계 1억 명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정의롭고 평등하며 폭력과 전쟁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고, 모든 여성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YWCA 운동을 이끈다.”이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1855년 설립된 YWCA는 ‘여성들과 소녀들의 권리 신장을 우선적인 과업’으로 여기며, ‘기독교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다른 신앙과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되 참여와 평등, 차별배제, 책임감의 인권원칙’을 견지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해왔다. ‘비전수립 2035’ 워크숍은 회원국YWCA이 회원 단체 내의 통합적인 운영과 양질의 운영과 책임성을 보장할 만한 기준을 세워 다양성의 가치를 지속시켜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2035 비전수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실천으로서, 우선적으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신장과 리더십 동원,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을 다

집했다. 즉, 세계YWCA와 각 회원국YWCA 프로그램에서 젊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다양한 조직 수준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조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세대 간의 혁신'을 통해 YWCA 운동 전반에 훌륭한 선후배 관계를 증진시키고 회칙에 따라 이사회 25%를 30세 이하의 젊은 여성에게 할당하고 향후 이 비율이 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전략적 실천 방법으로 공유했다.

셋째, YWCA운동의 지속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제YWCA리더십 협회' 등을 세워 양질의 체계적인 리더십 훈련을 제공할 것을 언급했다. YWCA운동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각 회원국YWCA는 각자의 사업에서 비전수립 2035를 필수적 요소로 포함해야 하며, 각국의 이사회는 이러한 실천과 헌신을 모니터링하며 비전의 도달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세계대회 기간 중에는 전 세계 120여 개국 회원국이 함께 세 개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세계대회에서 승인된 결의문은 첫째로, 캐나다YWCA가 제안한 '세계YWCA 운동계획(World YWCA Advocacy Plan)'이다. 전 세계의 YWCA는 중점운동을 통해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운동 목표를 갖고, 각국의 이슈가 반영된 국제 운동 어젠다를 수립하여 향후 세계YWCA 운동 계획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YWCA 대표들의 95%에 달하는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두 번째로 영국YWCA가 제안한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규칙, 지위, 연령, 계층, 계급, 국적 장애여부, 성적지향, 성 정체성과 표현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안건이다. 소수 여성들-장애여성, HIV를 앓는 여성, 인종·민족·종교적 소수 여성, 동

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은 모두 차별과 인권 침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YWCA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인권과 차별에 관한 결의를 재강화하여 다양성 안에서 소수자들을 더 넓게 포용하는 것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별도의 세션을 마련하여 2시간 이상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토론 이후 투표에서는 찬성 65%, 반대 28%, 기권 7%를 기록하며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YWCA와 일본YWCA가 발의한 '핵에너지와 핵무기 반대' 결의안으로 '핵발전은 여성폭력의 한 형태이다'는 주장으로 전 세계 회원YWCA에 핵 없는 대안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들이 역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찬성 80%로 한·일YWCA의 공동결의문이 채택되었다.

한편, 이번 제28회 YWCA세계대회에서 한국YWCA는 특별히 운동성을 주목받았다. 청소년리더십 분야 워크숍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핑크머니'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평화와 인권분야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우수운동모델'로서 한국YWCA의 평화통일운동을 소개한 워크숍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일본YWCA와 함께 진행한 탈핵 워크숍은 본래 예정보다 많은 2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서 온 YWCA회원들에게 핵의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탈핵 워크숍과 공동결의문 통과로 앞으로 4년간(2016~2019) 전 세계YWCA가 함께 탈핵을 위한 운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한국YWCA는 세계YWCA의 지도력을 배출했으며, 세계YWCA 이사와 부회장으로 한국YWCA 한미미 실행위원(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장, 핑크머니 자문위원장)이 선출되었고, 세계YWCA 공천위원으로 한국YWCA 원영희 실행위원(한국YWCA 서기이사)이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글:편집실)

## 청년의 눈으로 본 YWCA 세계대회



28th World YWCA Council  
Bold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 Towards 2035  
11-16 October, 2015

글 | 이연주 (한국YWCA 청년인터넷방송국 전 아나운서, 세계대회 청년대표)

YWCA 세계대회 시작 이틀 전 세계 각국의 YWCA청년들이 모였다. 특히 이번 세계대회는 젊은 여성의 리더십을 강조했고 청년으로서 각국YWCA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사전대회(Pre Council)의 핵심적인 목적은 유엔(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젊은 여성들의 리더십 함양과 미래비전 설정이었다. 이를 통해 세계대회에서 젊은 임원들의 당선 비율을 높이고 YWCA 의사결정 과정에 젊은이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YWCA 젊은 여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고 이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토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거나 다채로운 방식으로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세계대회 둘째 날엔 아시아 국가들의 여성 이슈들을 청년

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의미 있는 아시안 저니(Asian Journey) 시간을 가졌다. 서울YWCA는 '피스 인 아시아' 사업을 감동적인 영상으로 소개했다. 한국YWCA의 선한 영향력이 국내를 넘어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한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었다.

한국YWCA의 청년들은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계YWCA 회원들과 함께하며 국제적 감각을 길렀고 동행한 멋진 YWCA의 선배님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왼쪽부터) 대전Y 이지성 간사, 이연주, 여수Y 대학Y 김미리 회원, 신보미

글 | 신보미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세계대회 청년대표)

제28회 YWCA 세계대회는 한국YWCA라는 이름을 만들기 위해 긴 세월을 지나 현재도 헌신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영성을 기반으로 한 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진짜 젊음이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마음인 것을 깨달았다.

젊은이들은 시간마다 모여 '우리 목소리를 내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보자.'하며 서로를 이끌었다. 그 결과 세계YWCA 이사 60퍼센트가 20대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담대한 지도력이 갖는 기대감이 기뻐지만 무섭기도 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YWCA에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지 않고 사회의 일과 과제만 이야기한 청년들이 두려웠다. 시대만 따라가고 그 속의 영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진정 알곡이 될 수 없고 그저 보기 좋은 쪽정이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YWCA 역할이 중요하다. 영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YWCA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 곳곳에서 함께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세계YWCA는 2035년까지 1억 명의 소녀들을 키운다는 목표를 정했다. 단지 여성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성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살림의 영성을 탄탄하게 다진 한국YWCA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다 함께 올라가 '강남스타일'을 찾았다. 한국YWCA가 보여주는 세대 간 소통은 세계YWCA의 회원들을 열광시켰다. 모두가 열광한 무대에서 나는 한국YWCA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앞으로 한국YWCA에서 배출할 놀라운 인재들이 오늘보다 더 세계YWCA를 열광시키고 전 세계 여성운동을 뒤흔들 수 있음을 믿는다. 청년들 또한 선배님들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평화워크숍 “평화를 위한 세계 여성들의 역할”**

글 | 이영희 (서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전주YWCA 회장)

제28차 YWCA세계대회의 워크숍은 3일 동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고 한국YWCA는 핀란드YWCA와 공동으로 평화와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했다.

핀란드YWCA의 ‘무서운 어머니들(The Horrible Mothers)’ 프로젝트는 제목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사춘기 청소년자녀를 둔 어머니를 지원하고 부모역할 기술을 강화시키며 가족의 역할변화를 인정하고 동료지원 그룹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어서 관심이 가는 주제였으나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짧은 소개로 마무리된 것이 아쉬웠다.

한국YWCA는 먼저 영상을 통해 광복 70주년이면서 분단 70년인 한국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었다. 짧은 영상 속에서도 진한 아픔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영상을 보는 많은 외국 참가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서 한국YWCA가 지속적으로 해온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 평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북한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 올 봄에 있었던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국제여성평화걷기(WCD)와 이때 사용했던 조각보의 의미, 임진각 평화콘서트 등을 통해 그동안 한국YWCA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여정을 소개하고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했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대만 출신의 젊은 대표이자 TV아나운서로 활동하는 회



평화의 스카프를 두른 한국YWCA 참가자들

원은 “국제여성평화걷기(WCD)가 대만에서도 뉴스로 보도되어 이슈화됐었다”며 “분단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는 관심이 덜한데 한국의 젊은 세대는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요르단 대표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별로 관심이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YWCA는 젊은 세대의 관심이 적기는 하지만 이는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문화적으로 지속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평화에 대해 교육하고 알아가도록 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한국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일들에 힘써 노력해야 함을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평화운동이 한국 YWCA는 물론, 전 세계 YWCA 국가들과 함께 이루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세계대회에서 나눈 평화의 이야기들이 함께 실천되기를 바란다.

**탈핵워크숍 “핵 발전은 여성폭력의 한 형태이다”**

글 | 수미에 오가사와라 (일본YWCA 국제팀 간사)

**한·일YWCA가 공동으로 탈핵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

한·일YWCA 공동으로 YWCA 세계대회에 결의문을 제안한 목적은 핵무기와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세계YWCA의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도 세계YWCA는 핵무기에 대한 우려와 대안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지만, 핵에너지의 사용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결의문은 없었다. 그렇기에 핵에너지와 핵무기를 반대하는 단호한 결의문을 만들어 제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두 번의 핵폭탄 투하의 아픔과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은 지역이기도 하다.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본과 한국 YWCA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 세계YWCA와 함께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중요한 일이다.



탈핵 워크숍에서 발제에 경청하는 세계 각국의 회원들

**탈핵워크숍과 공동결의문의 주된 이슈와 내용**

탈핵워크숍과 공동결의문의 주된 내용은 핵에너지와 핵무기가 여성폭력의 한 형태이고 이를 위해 YWCA 회원들이 함께 결의하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안에너지와 핵 없는 세상을 만

들기 위해 여성의 지도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핵에너지와 핵무기는 인류의 건강을 해치며 환경 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여성과 어린이를 희생시키면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남성 중심 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일본과 한국YWCA, 그리고 세계YWCA와 회원국 YWCA와의 협력**

세계대회에서 승인된 핵에너지와 핵무기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세계YWCA와 회원국YWCA가 함께 이루어 나가고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과 한국YWCA는 이 운동을 실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핵에너지의 사용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YWC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 120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YWCA를 통해 그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운동을 펼쳐나갈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기대**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핵에너지가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일YWCA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제출한 워크숍과 결의문이 회원국 YWCA의 지역사회에서 실현되어 핵에너지와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알려지고 핵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당선자 인터뷰

## 세계YWCA 이사와 부회장에 당선

한미미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존하는 YWCA 공동체의 터전 만들어야”

제28회 YWCA 세계대회의 이사 선거는 8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캐리비안, 유럽, 중동, 북미, 라틴아메리카, 태평양)으로 나뉘, 각 지역에서 두 명의 이사를 선출했고, 18명의 이사후보를 대상으로 6명의 부회장을 선출했다. 가장 많은 득표수로 세계YWCA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한미미 실행위원을 만났다. (정리: 편집실)

이번 세계대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한미미: 우선 부족한 제가 한국YWCA 실행위원의 역할을 넘어 세계YWCA의 부회장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대회 기간 중에 진행된 워크숍에서 청년리더십 분야의 한 예로 씽크머니 워크숍 발표, 일본YWCA와 공동으로 진행한 탈핵 워크숍과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세계인의 공유를 위한 평화 워크숍 발표를 맡으면서 한국YWCA의 운동을 알리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과정 중에 한국Y 주관의 워크숍에 참여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회장으로서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시아의 목소리를 세계Y 운동에 반영하고, 그 가운데서 한국Y의 탈핵운동과 평화운동의 경험도 함께 나누게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세계YWCA의 부회장으로서 임기 내에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은지요?

한미미: 이번에 선출된 6명의 부회장 가운데 4명은 20대의 젊은 이사이고, 팔레스타인과 한국만이 40대 이상 이사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이사 총 20명 가운데 60%가 20대들로 구성되었죠. 그야말로 저에게 세계YWCA 이사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감당하는 세대 간(inter-generation)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젊은 이사들을 포용하고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세계Y 운동에 접목시키고 격려하는 멘토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대회에서도 느꼈지만 전통적으로 평화롭고 겸손한 성격의 아시아인들은 세계 속에서 아시아 여성들만의 Y운동을 선명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아시아 여성의 리더십과 운동의 공유를 위한 아시아 16개국 회원 YWCA 지역 기반(regional platform)을 만들어 아시아 각국의 상황과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의 운동을 잇고 공유하는 리더십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성을 살리기 위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경험이 공유되고 성장과 성숙이 있는 YWCA다운 아시아 연대와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1월에는 서울YWCA 국제교류프로그램인 '미안마-태국 국경 난민봉사 프로그램'에 함께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로 사역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2016년 새해 서울YWCA 난민 봉사활동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존하는 공동체로 사는 YWCA가 되기 위해 우선 각 나라와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bonding), 각 나라와의 관계를 연결하고(bridging), 관계망을 바탕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building) 사역을 해야 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장으로서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와 광복70주년 기념 평화나눔페스티벌

진행에 크게 기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YWCA의 부회장으로서 평화운동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부회장으로 당선된 후 세계대회 전후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게 된 것은, 저와 한국YWCA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확산을 통해 세계Y를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YWCA 운동이 더욱 담대해지고 지역의 운동과 이슈를 묶어내고, 연결

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YWCA 운동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시아YWCA를 통해 청년 리더십을 살리고, 평화와 탈핵을 이 슈화하여 여성과 평화의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 호수아와 같은 전사의 마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력을 지니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겠 습니다.

당선자 소감

글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서기이사)

## 4년간 세계YWCA 이사 임기 마치고 세계YWCA 공천위원 당선

새롭고 흥미롭고 도전적인 부분이 있었던 만큼 당황스러운 순간도 많았던 세계YWCA 이사로서의 4년. 사람을 워낙 좋아해 누구를 만나든 두려움이 없는 성격 덕에 세계 속에 많은 Y의 친구들이 생겼고, 전 세계 여성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시기였기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년간의 세계Y 이사 활동을 정리해 본다면 빈곤과 질병 퇴치운동의 절실함 인식, 여성인권회복과 IT(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와 IL(International Leadership Institute) 프로그램을 통한 폭력추방운동 현황 이해와 국제교류, 그리고 거대 조직의 운영과 효율적인 팀워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 경험과 참여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비기독교인 이사, 동성애자 세계Y 이사들과 함께 '여성'을 논하며 우리 기독교 여성단체의 포괄성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갈등하기도 했고, 영적인 위기 현상 속에서 크리스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언하며 일깨우려 노력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빈곤의 정도가 우리나라 1960년대 초반 형편도 안 되는 아프리카 대륙의 회원국Y에서 온 세계Y 이사 모니카(나미비아 사무총장)는 중고 노트북 하나에도 춤을 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대표인 호다와 하이파는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세계Y 이사들입니다.

다.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을 이사회 운동으로 해 보자는 제안에 동의와 재정을 해 주었죠. 이스라엘에는 YWCA가 없지만 팔레스타인Y는 분쟁지역에서 고통 받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UNSCR 1325 실천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에서 개최한 세계YWCA 교육프로그램인 ITI 준비위원장으로 봉사하며, 세계 30여개국에서 온 회원들과 DMZ를 방문한 경험은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제 2015년, 세계Y 지도력 속에 한국YWCA를 세우셨으니 담대히 그러나 지혜롭게 세계 자매들과 연합하여 세계Y의 바른 운동성을 회복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YWCA로 이끌어 나아가려는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YWCA가 적극 나서서 세계Y에 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젊은 글로벌 여성 인력을 Y 지도력으로 길러, CSW, UN Women 등 국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시의적절하게 일본Y와 공동으로 제출한 탈핵결의문이 통과되었으니 탈핵운동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세계를 안전한 세상으로 이끄는 Y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세계에는 한국YWCA가 할 일이 많습니다. 

# 청년 일자리 해법은 재벌개혁이다

글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마태복음 13장 12절의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라는 말씀을 학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마태효과’라고 한다.

최근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 말씀을 언급하며 대기업을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서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낙수효과, 즉 돈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했다. “소수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대다수는 더 가난해지며”, 그 결과 “인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이 부정된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셨다.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상위 10%가 부의 66%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위 90%는 사생결단의 경쟁에 내몰린다. 청년의 경우 그 실상은 더 가혹하다. 청년 연관어 1위가 ‘일자리’고 2위가 ‘실업’이다. 청년이면 마땅히 가져야 할 도전, 꿈, 희망, 기회, 용기, 사랑 등의 단어가 사라졌다. 그 원인은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일자리가 없어서도 아니다. 스펙쌓기에 치열한 청년들이 갈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좋은 일자리가 350만개 사라진 반면 나쁜 일자리는 그 이상 늘었다. 왜일까? 막대한 혜택을 받는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대신 자신들의 공간 채우기에 바쁜 탓이다.

재벌 대기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조씩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산재은페로 버는 돈이 매년 1조가 넘는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

한 낮은 과세로 매년 최소 3조의 이익을 얻고 하청의 재하청이나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는 이득은 계산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다보니 재벌공간은 꼭 차서 흘러넘친다. 사내유보금이 710조가 넘고 2006년 OECD 12위였던 기업저축이 2012년 이후 전 세계 2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재벌대기업은 투자와 고용 모두를 줄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재벌대기업은 청년고용을 1.9% 줄였고 투자도 4% 이상 삭감했다. 건물을 사들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활성화된 골목상권을 장악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 손쉬운 돈 벌기에 목을 맨다. 결국 괜찮은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바꾸거나 하청 및 재하청으로 돌려 좋은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의 재벌대기업의 돈 벌기 관행이 정착되었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직접고용을 줄이는 것은 가계 소득의 삭감과 가계 부채의 확대를 낳는다. ‘청년고용절벽’, ‘고용없는 성장’, ‘가계 저성장과 기업 고성장’의 불평등을 강화시킨다. 심지어 재벌대기업은 노동조합 활동에도 부정적이며 하청과 재하청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최근 롯데는 10년간 롯데에서 일한 직원이 사망했는데도 하청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

재벌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없애고, 가계 소득의 증가를 가로막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오죽하면 국제통화기금(IMF)가 노조조직률이 떨어질수록 상위 10%의 소득집중이 늘어난다며 노조조직률 높이를 권고했겠는가. 최저임금을 인상하

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전 세계 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된 것도 부의 불평등이 인간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탓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정부만이 과거의 낙수효과에 집착한다. 대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자연스럽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고 한다. 지난 15년간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피해가 청년이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전 사회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외면을 넘어서서 기업구조개혁, 재벌개혁대신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다. 월평균 279만원의 55세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를 175만원까지 깎는 잔인한 임금피크제를 강요한다. 또한 한 해 600만 이상이 해고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쉬운 해고’를 촉구한다. 쉬운 해고 도입되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강요하며 제공했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돈이 아까워 쉬운 해고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 52시간인 노동법을 주 60시간으로 바꾸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실업을 했을 경우 받는 실업급여의 문턱을 높여 최대 126만명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전 국민에 대한 고문이다. 그래서 이익을 얻는 것은 오직 일부 가진 자 뿐이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그것마저 빼앗기는 마태효과를 한국에서 실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헌법을 부정하고 교회법도 무시한다.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이 있다. 돈을 새로운 이상으로 만들지 않고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재벌대기업이 매년 3% 청년할당제만 해도 연간 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법인세법 원상회복으로 늘어

나는 세수가 연간 5조, 사내유보금 1% 이익공유로 사회로 돌아가는 돈이 연간 7조이다. 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수십만 개이다. 미국 대선주사 1위 힐러리의 대선공약 첫 번째가 이익공유제인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이 번 돈은 혼자 번 것이 아니라 직원 및 하청, 재하청의 기여이기 때문에 초과로 달성된 이익을 기여한 사람들에게 되돌리고 그런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익공유제의 내용이다.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도 국유화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고 초과로 달성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새로운 기여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과한가? 헌법에 어긋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가? 오히려 마태효과를 확대하는 것이 극단적이고 과격하며 헌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재벌대기업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민은 약간의 평등을 원한다. 청년은 약간의 희망만 있어도 행복하다. 국민은 약간의 정의만 실현되어도 숨쉬기가 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실현되기를 바라신다. 야당 환경노동위원회가 재벌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이다. 막대한 감면을 받는 재벌대기업이 투자와 고용확대는 커녕 공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순리를 거스르니 막혀있는 길을 트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동료를 짓밟고 친구를 내치며 이웃을 죽이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서민들은 사랑하고 아이를 낳을 여력조차 없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헌법이 준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처럼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채택 15주년을 기념하며

글 | 조영미 (한국YWCA연합회 지역운동국 부장)

2015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북경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6.15공동선언과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UN안보리결의 1325채택 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글로벌 정의 차원에서 경제, 사회, 환경과 젠더, 상대적 불평등 해소부터 지속가능한 사회, 생태계 보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지난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확정된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한국YWCA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정전협정체제 하에 살아가는 여성들인 우리가 전쟁의 상처를 넘어 그 동안 평화운동의 여정을 돌아보며, 국내외 여성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평화운동의 발걸음을 작지만 힘차게 내딛었다.

지난 5월,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는 남북한의 분단과 갈등의 문제를 세계평화로 확장시키면서 대화와 화해, 상호이해와 존중,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선언을 여성의 힘으로 이루어냈으며,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전쟁과 분단에 대한 기억을 공유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만드는 평화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됨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여성주의 평화운동 연구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성찰과 염원을 나누는 기도회로, 평화를

향한 우리의 소명을 재발견하고 다짐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어진 다양한 캠페인과 모금활동, 전국의 자원지도자와 실무자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가로서의 다짐을 교육으로, 문화로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한 해를 보냈다.

올해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 1325가 채택된 지 15주년. 한국YWCA는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29일(목) 심포지움에 참석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2014년 정부가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의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및 회복(Relief and Recovery) 4가지 분야의 총 10개 목표와 각 목표별 세부 과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들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연대를 다짐하며,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오른쪽 권고안 참고)

한국YWCA는 지속적으로 평화운동의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다양한 평화운동과 연대하며 나아갈 것이다.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며,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울 것이다.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에 즈음한 한국여성들의 권고안

2015년 10월 29일,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평화유지활동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와 여성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국가의무 강화 등, 획기적인 이행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결의안 2242의 채택을 환영한다. 이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참여한 우리는 한반도 분쟁예방과 남북의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권고하고자 한다.

### 1. 공약을 현실로!

우리는 모든 관계당국과 행위자들이 안보리 8개 결의안(1325 - 2242)에서 약속한 공약과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의 글로벌 촉진기구(Global Acceleration Instrument) 설치와 같이 국가들이 분쟁 예방, 평화 구축, 여성인권보호에 헌신하는 여성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한과 역량을 육성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 2. 여성을 평화, 안보, 외교, 통일의 동등한 파트너로!

우리는 한국정부가 평화,안보,외교,통일 분야에 여성 지도력의 완전한 참여와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 여성의 경험과 지식, 필요가 통합될 것을 권고한다. 여성을 평화,안보,외교,통일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도모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아

시아 평화도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길 기대한다.

### 3. 전쟁피해자에 대한 폭력 종식의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계기로!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불 처벌(impunity) 관행의 종식을 촉구한 1325 이행의 본보기라 생각하며 한·중·일 정부가, 특히 한·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 해결 조치를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삶의 끝자락에 서있는 할머니들에게 인권회복의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동아시아 화해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임을 유념하고 종전 70주년에 이를 반드시 관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준전시상태인 정전체제 하에서 살고 있으며,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에 의한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을 목도해 왔다. 이에 대한 조사와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 4. WPS 의제 이행을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 3자 기구를!

우리는 1325 의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국회, 시민사회 3자간 기구의 결성을 제안한다. 3자간 기구는 WPS 의제의 가치를 격상시키고 국내화와 이행을 촉진시키며 민,관,의회 사이에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다. 또한 상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책임(accountability) 소재를 분명히 하고 대응 능력을 고양시킬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힘을 모아 1325 의제 이행에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0월 29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움 참가자 일동

공동 주최

나경원 의원 이미경 의원 여성평화외교포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원 YWCA 활동보고

올해 7월, 산자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새로 핵발전소 2개를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는 "전기는 남아돈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필요 없다", "민주주의 기본 절차 무시한 영덕 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회원Y와 연합회 실행위원들은 주민투표를 스스로 실행하기로 결의한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영덕에 현수막을 보냈다. 그러던 중 10월 24일(토) 열리는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승리를 위한 전국 집중행동'에 YWCA가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게 되었다.

글 | 배유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간사)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영덕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주민투표를 20여일 앞 둔 10월 24일(토) 오전 8시, 연합회와 서울Y, 경기지역Y(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의 활동가들이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지지를 위한 YWCA 탈핵버스'에 올랐다. 이미 세 번의 핵폐기장 건설 시도를 막아내면서 상처받고 갈라진 영덕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핵발전소 반대에 대한 확고한 민의가 표출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영덕으로 가는 길가에는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매를 단 사과나무들이 늘어서 있어 '청정 영덕'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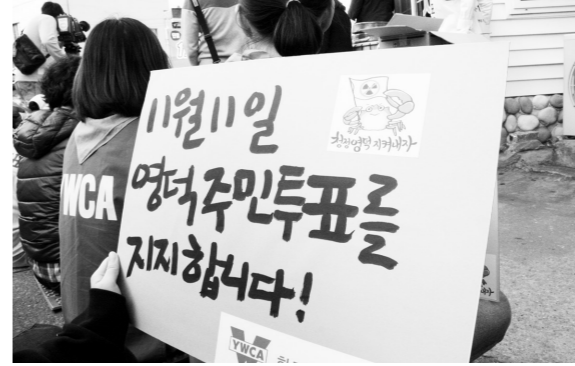
오후 2시가 훌쩍 넘어 집회 장소인 신라약국 앞에 도착하니, 고양Y와 동부지역Y(대구, 부산, 안동) 참가자들을 포함한 500여 명 정도가 운집해 있었다. 경주 월성원전 인접 지역 주민이 "정부가 30여 년 전에도 우리한테 핵발전소 지으면 잘 살게 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30년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마셨고, 갑상선암에 걸리기도 했다. 우리는 무지해서 핵발전소를 받아들였지만, 영덕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연대 발언을 했고, 많은 이들이 핵발전소 피해 당사자의 호소력 있는 발언에 눈시울을 붉혔다. 투쟁 결의문

낭독 시에는 한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와 "우리에게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청정 영덕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영덕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함께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집회 후에는 피켓을 들고 영덕군청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소감을 나누었다. 한 활동가는 "집회 도중 역시 YWCA가 탈핵 운동의 꽃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의 탈핵운동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나누었다. 또 "핵발전소 문제에 외부 세력이 따로 있겠는가? 핵폐기물과 핵사고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Y의 활동가들은 비록 오늘 많은 군민들이 모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주민투표 개최를 위해 우리가 더 지지를 보내자고 마음을 모았다.

## 영덕 주민투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승리

한수원은 올 여름부터 주민들에게 수박, 복숭아, 쌀을 나눠주고, 선심성 여행을 보내주는 등 물량공세를 펼쳐왔다. '법적 효력 없는 주민투표 거부, 영덕 지역발



전 10대 과제가 적힌 유인물 수만 장이 배포되었고, '박근혜 정부 성공위해 투표불참 약속하자' 등 관변단체가 내건 현수막이 군 전체에 도배되었다. 영덕에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장과 재처리 공장을 포함한 원자력 클러스터를 세우려는 핵마피아들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영덕을 파고들겠다고 인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방해가 커질수록, 한국이 탈핵사회로 갈 것인가, 핵마피아들의 사회로 갈 것인가가 영덕에서 판가름 난다는 경각심도 커져갔고, 드디어 11월 11일(수)과 12일(목)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치러졌다.

연합회와 대구Y, 부산Y의 실무자와 봉사자들은 주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해 영덕으로 향했다. 연합회 실무자들은 투표 전날인 11월 10일(화)에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주민투표 홍보단'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투표관리 교육을 받았다. 또한 투표 당일인 11일(수) 새벽 5시경부터 남정면 제2투표소에서 투표관리단으로 활동하였다.

6시가 되자 주민 분들이 투표를 하러 오시기 시작했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혀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있는 분들보다 신청하지 않고 오신 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10월 24일에도, 명부 작성 때도 숨어 있던 민심이 이제야 나오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투표소 앞에는 한수원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기웃거리고 있었다. 익명성 없는 영덕에서 그런 감시어린 눈길은 엄청난 압박임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 출생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투표하려는 주민들이 줄을 이었다. 연합회의 활동

에 이어 11일(수) 오후 1시부터 8시까지는 강구 제1투표소와 제3투표소에서 부산Y가, 영덕을 제2투표소에서 대구Y가 투표관리단으로 활동하였다.

주민투표는 12일(목) 저녁 8시까지 진행되었고, 13일(금) 새벽에 결과가 발표되었다. 영덕군 전체 유권자 34,432명 중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1.7%에 해당하는 10,27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가 투표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할 수 없었던 부재자 7천여 명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유권자는 2만 7천여 명이고, 11,209명은 이중 40%가 넘는 수치이다. 불법이고 효력도 없는 투표라는 정부와 한수원의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기어이 투표를 하러 나온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의미한 결과이다.

투표는 끝났고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영덕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영덕의 여러 군민들, 그리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투표인 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하고,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환경을 지켜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YWCA가 있다. 투표관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여러 회원Y가 마음을 모아 주민투표관리위원회로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YWCA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핵발전소 건설로 우리의 농어촌 주민들과 환경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한국 탈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할 것이다. YWCA

## 돌봄과 나눔정신을 실천한 김수지 이사장 생명 먹거리를 위해 헌신한 김정열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는 YWCA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11월 5일(목) 오후 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에 여성 지도력을 세워 온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았다. 올해 대상 수상에는 김수지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젊은지도자상에는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리: 편집실)



(왼쪽부터) 박진희 한국씨티은행장, 김정열 젊은지도상 수상자, 김수지 대상 수상자,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사하며, 아하가족성장연구소에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남성 중심의 농업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힘쓰고 생명 농업 활성화를 위해 열정과 사명감으로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수지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은 한국간호학계의 선구적인 지도자로 돌봄과 나눔의 정신으로 간호 현장에서 헌신하며 국내외의 간호 인력 양성에 힘쓴 점이 높이 기리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79년 당시 한국에서는 용어조차 새로운 호스피스 케어를 실제로 제공할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2011년부터 말라위의 수도 릴롱게에 위치한 대양간호대학에서 학장으로 봉사하며 말라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현재는 양주에 위치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사랑의집'에서 봉

김 사무총장이 농업과 농민운동에 헌신한 지 25년. 김 사무총장은 여성농민들이 마을단위 공동체 안에서 텃밭농사의 규모를 넓혀 도시의 소비자 회원에게 텃밭 생산물을 꾸러미를 통해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언니네텃밭'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친환경 생명 먹거리를 생산하는 여성 농민과 소비자들을 연결시킨 농산물 유통 성공사례로 주목받았고, 여성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소비자들과 함께 확장시켜 나가고, 후배 활동가들의 양성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YWCA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김수지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젊은지도자상 김정열 전

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의 수상을 계기로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YWCA



### 대상 김수지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

“훌륭한 선배, 동료, 후배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재임 시 국내 최초로 정신보건간호사 훈련과정 개설해 지역 보건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발하고 만성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재활 훈련을 도왔던 것이 가장 보람스럽고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때때로 간호 현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간호 자체가 저에게 큰 의미와 보람을 주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간호실무와 교육, 연구를 행함으로써 보다 좋은 간호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간호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졸업 후 첫 근무지인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돌볼 때 진정한 간호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종양학자인 쿠블러 로스(Kubler-Ross)와의 만남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호스피스 교육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삶의 걸음걸음에 대한 너무나 과분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밖에는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돌봄을 성실하게 실천하며 환자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지구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 섬김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 젊은지도자상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성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YWCA의 역사 속에서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이 감사드리고, 부끄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서 여성 농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여성 농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은 아직도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가 우리 앞을 가리우는 것처럼 한 걸음도 내딛기조차 힘들 정도로 여

성 농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 농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 대한민국 국민이 더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길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들뜬에 있는 여성 농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분들로 인해 생명의 밥상이 차려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을 150만명의 여성 농민들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교육부가 2017년 3월부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이 나섰다. (글: 편집실)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11월 9일(월) 낮 12시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으로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YWCA,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 위원, 실무자 등 총 110여 명은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철회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11월 3일(목)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였고, 11월 중 집필진을 구성하여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국정 교과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를 발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역사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것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서의 검·인정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1992.11.12.)이나 세계의 경향으로 보아도 민주주의에 더욱 적합한 제도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10월 23일(금) 한국YWCA연합회와 Y-틴 전국협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한국YWCA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입장 발표를 통해 “청소년은 역사 교육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상호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와 강행의 절차를 밟지 말고, 수많은 역사학계 관련자들, 시민사회단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인 청소년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날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통해 “현 시점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공

분을 넘어 민족과 함께 해 온 시민단체로서의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역사를 고쳐 쓰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렸다.

공동기자회견 후에는 “아이들은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UN도 우려하는

단일 역사교과서 거부한다!”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명동을 지나는 시민들 사이로 행진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시민들이 원하는 역사교과서 제정을 요구했다. YWCA와 YMCA는 청소년단체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국정화가 철회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 한국YWCA연합회 ·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기자회견문

### 친일과 냉전의 미몽에서 벗어나 역사를 직시하고 국민과 대화하라! -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온 청소년단체이다. YWCA와 YMCA는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평화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청소년의 민주적인 평화 시민으로의 성장에 역행하며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역사적 상상력과 가능성을 제한한다. 우리는 이미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며 고시 철회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 바 있다.(10월 23일, 11월 3일 성명)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많은 시민을 적으로 돌리며 절차를 무시하고 맹목적인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21세기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다.

YWCA와 YMCA는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가장 오래된 민간단체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친일과 냉전의 미몽에서 벗어나 역사를 직시하고 국민과 대화하라!’  
‘갈등과 분열이 아닌 평화와 포용의 정신으로 청소년들과 21세기 통일한국을 노래하자!’  
이것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YWCA와 YMCA의 자기

역사에 대한 죄책 고백이기도 하다. 우리는 민족독립운동의 일선에서 그리고 민(民)의 자치조직으로서 조선 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한 선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꿈을 잃어가는 조선의 청년들을 모으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고심했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친일과 독재의 편에서 있던 역사를 함께 성찰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역사만큼이나 선배들이 행한 부끄러운 역사를 지금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 역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역사를 말하는 것은 결코 자학이 아니다. 그것을 숨기고 왜곡하고 미화하며 힘으로 진실의 입을 막는 것이 미몽이며 자학이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미몽을 지키기 위해 온갖 거짓과 폭력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평화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포용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현 정부가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 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과 대화하라!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2015년 11월 9일

한국YWCA연합회 · 한국YMCA전국연맹

#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청소년과 여성의 금융접근성 높이자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인구의 70%가 가장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인 예금도 하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소외자들이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YWCA 씽크머니가 금융 포용성을 활용하여 빈곤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어떤 금융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지역의 강사와 실무자들이 2015 아태지역 금융 포용성 서밋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글 | 홍수진(한국YWCA연합회 협력사업팀 간사)

씨티재단이 주관하여 올해로 12회를 맞는 금융교육 회의는 10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각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 회의에는 연합회 한미미 씽크머니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연합회 실무자, 회원YWCA의 씽크머니 담당 실무자인 광주Y 장선희 간사와 우수교사인 대구Y 박윤정 강사가 참가했다.

앞서 '금융교육회의(Financial Education Summit)'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회의의 명칭이 올해부터 '아태 지역 금융 포용성 회의(Asia-Pacific Financial Inclusion Summit)'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금융 교육에 관한 부분이 많지 않아 약간의 걱정과 우려로 출발했었다. 하지만 올해 주제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포용성의 속도를 높이는 것(Accelerating financial inclusion to enable economic progress)'에 따라 금융 소외계층인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씽크머니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회의였다.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이란, 금융으로부

터 소외된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일컫는다. 첫째 날 미국 터프스대학교의 바스카 차크라보티(Bhaskar Chakravorti) 교수는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확대시키는 방안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아태 지역에 있는 수백만 명의 금융 소외자들이 금융 시스템에 진입하도록 도왔다"고 언급했다.

둘째 날 '금융체험 조별활동' 세션은 2015년 YWCA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 체험과 유사한 활동으로 경제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세션을 통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개인의 금융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흥미 위주의 체험 활동과 맞춤형 상담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 영업사원, CEO, 고객, 은행 등을 맡아 상품(종이배)을 만드는 재료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러 사람의 노동력으로 배를 완성한 후 그것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활동을 진행했다. 함께 참석

했던 광주Y 장선희 간사는 활동이 끝난 후 "2016년 찾아가는 씽크머니 버스에 금융체험활동으로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중고등학생에게 유용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여성의 금융포용성 강화 워크숍'에서는 YWCA의 성인지 운동과 많은 관련이 있었던 워크숍이었다. 발제자인 재클린 버폰드(Jaclun Verfond)는 금융 서비스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자료를 취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성들이 직접 금융의 주체가 되어 금융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국YWCA 참가자들은 각 세션의 휴식 시간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씽크머니 교재와 교구를 전시했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이 비치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직접 씽크머니 영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씽크머니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내년 1월에 진행되는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 캠프와 포럼에 관한 전단지를 나눠 주며 설명을 하니 다양한 국가의 활동가들이 이에 관한 문의를 했다.

매일 밤 일정이 끝난 뒤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연구소 연구소장, 씨티은행 관계자들, 연수 참가자들이 모여 각자 참석한 워크숍의 주제들과 네트워킹했던 사람들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매일 저녁 늦게 진행되어 피곤하기도 했지만, 서로가 배우고 깨달은 점들을 정리하며 2016년 씽크머니를 생각해보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



(왼쪽부터) 한미미 위원장, 도로시(미국 씨티재단), 최보인(씨티은행), 정운영 연구소장, 홍현정 부장, 장선희 광주Y 간사, 박윤정 대구Y 씽크머니 강사

셋째 날은 마닐라YWCA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필리핀 각 지역Y의 회장님과 마닐라YWCA의 사무총장님과 회장님, 청년 대표 및 여러 실무자들의 정성스럽게 준비한 환영 파티와 예배에 감동과 감사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특별히 우리가 방문한 날은 Y어린이집에서 미스 유엔(Ms. UN)을 선발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필리핀 여자 아이가 코리아(Korea) 휘장을 매고 한복을 곱게 입고 있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국가는 다르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함께 운동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YWCA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가진 공통점을 깊이 깨달았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YWCA가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씽크머니 사업이 앞으로 10년동안 더 우리 사회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함양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과의 소통과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달려있다. 앞으로의 씽크머니 금융교육에 이번 금융 포용성 회의 기간 동안의 배움과 고민을 잘 적용해 다양한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의 올바른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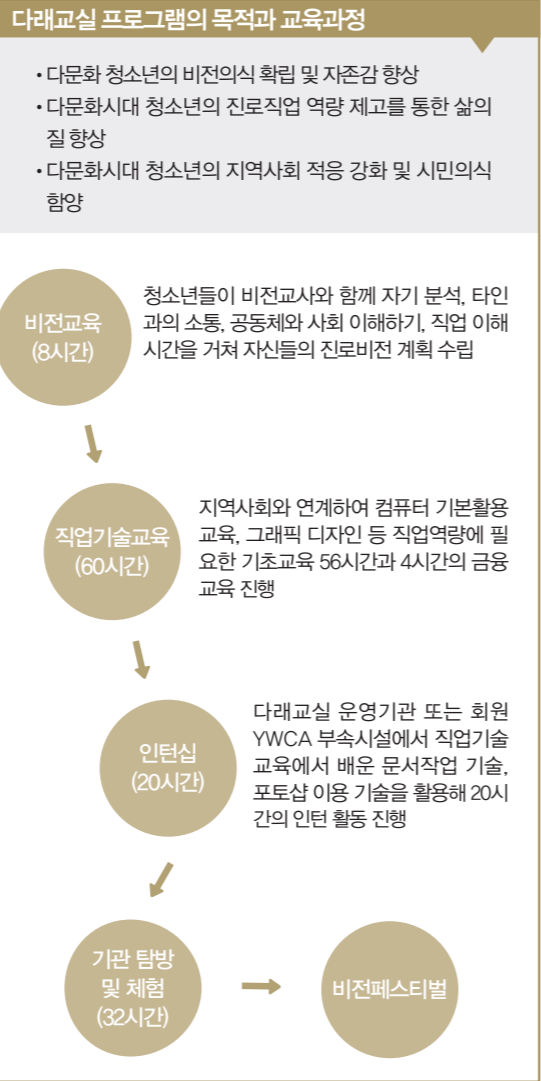
# 꿈의 연(聯)을 띄우는 다문화 청소년들



우리 사회 내 다문화 가정 수는 200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탐색하고 비전을 발견하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받은 결과를 나누도록 돕는 '2015년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 현장을 찾았다. (글: 편집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는 2014년 약 79만5000명, 2015년 1월 1일 기준 약 81만7000명(결혼이민자, 그 배우자와 자녀 포함)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조사해 펴낸 '2015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4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6만7806명으로 2013년 5만5780명에 비해 21.6%(1만2026명)가 늘었다. 전체 학생 수(633만4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2006년에 9389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0.1%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1%로 사상 처음으로 1%를 넘은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화적 장벽과 사회 내 갈등으로 이들의 진로 발견과 사회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으로 11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2015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다문화시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실'이라는 뜻의 다래교실은 결혼이민여성의 자녀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다문화시대 청소년들의 직업역량을 제고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聯)을 띄우는 다래교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의 첫째 날, 전국에서 서울YWCA 강당으로 모여든 130여 명의 다래교실 참가자들은 오랜만의 서울 구경으로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하늘빛의 단체 티셔츠를 함께 입은 참가자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다문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비전교육 활동을 지속한 우수교사 3명(의정부Y 김선희, 안산Y 박은주, 충주Y 권혁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다래교실 우수교사 시상식'에 참석했다. 충주YWCA 권혁용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가장 큰 환호와 많은 꽃을 선물받으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함께 해 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첫째 날 메인 프로그램인 '떠나자 비전탐방'은 관심 있는 직업군에 따라 20~30명씩 조를 이루어서 한국씨티은행, 카페성수, 뮤직앤뉴, 서울YWCA 체육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은평한옥역사박물관을 탐방하였다. 문화예술, 건축, 요리, 체육 강사, 사무직군과 관련된 조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다. 걸어갈 만큼 가까운 거리도 있었지만, 비가 내리는 날씨 탓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조원들도 있었다. 각 기관별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이 관련 직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페성수에 다녀온 조원들은 바리스타의 꿈을 가지고 '나만의 레시피'로 요거트 라떼를 개발했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다녀온 조원들은 개성을 담은 컨셉사진을 찍었다. 서울YWCA를 방문해 체육강사를 만나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직접 경험한 조원들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피로를 풀었고, 체육강사라는 직업이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고 발표했다.

첫째 날 저녁에는 고봄이 대표의 진행으로 다양한 몸게임과 별칭 시간을 통해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시간에는 비보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외 다수 공연 경력을 가진 비보이 팀이 나오자 강당이 떠나갈 듯이 모두가 환호하며 공연을 즐겼다. 모두가 '춤추고 꿈꾸는 다래교실'의 주인공이 되어 깊어지는 밤을 맞이했다.

페스티벌 둘째 날인 14일에는 '당신은 단 하나의 빛나는 별입니다'라는 주제로 사회적기업 (주)스플이 함께 하는 설치미술 퍼포먼스를 통해 국적, 성별, 환경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빛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솜학교는 이 곳에서 감사하게 받은 만큼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진주YWCA는 형, 누나들에게 배운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YWCA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배우고, 깨달은 바를 확실히 실천하겠습니다."  
"파주YWCA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다래교실, 전국 총 13개 지역에서 300여 명의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직업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한국YWCA연합회가 자체 개발한 비전교육 교재가 나올 예정이며, 더욱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앞으로도 지켜나가는 YWCA가 되기를

한국YWCA연합회후원회는 한국YWCA연합회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1949년 2월 16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후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행자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은 60여 년의 시간동안 YWCA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그 오랜 시간동안 경험한 YWCA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이은영 연합회 회계이사(실행위원)가 11월 19일(목) 연합회에서 이행자 명예연합위원을 만났다. (정리: 편집실)



### 이행자 명예연합위원 약력

1958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1962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졸업
1966~58	서울YWCA Y-틴 회원
1981~2003	서울YWCA 이사
1996~1998	서울YWCA 부회장
1999~2003	서울YWCA 회장
2000~2003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회계 행정위원장
2003~2006	한국YWCA연합회 회장
2000~2010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
2003~	서울YWCA 재정위원회 위원
2006~	서울YWCA 명예이사
2009~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2010~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

이은영: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이행자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56년 경기여중 Y-틴으로 처음 YWCA 활동을 시작하셨지요. YWCA와의 첫 만남은 어떠셨는지, 또 미국에서 돌아오신 후 다시 YWCA 활동을 시작하신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행자: 저도 선생님을 보니 반갑네요. 남편을 이곳 연합회 강당에서 Y-틴 활동을 하다가 처음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당시 아주 예뻐던 연합회 간사 선생님이 여기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다같이 독후감을 쓰라고 했는데 그 때는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한 것은 아니고 함께 만나고 그랬어요. (웃음) 남편은 지금도 내 얘기를 가장 잘 들어주고,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등 가족 모두 제 YWCA 활동에 아주 멋진 서포터즈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김현자 선생님 남편의 형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 다녔었어요. 미국 생활 9년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김현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앞으로 뭘 할까 고민하는 저에게 “YWCA 가서 봉사해”보라고 해서 YWCA와의 인연을 다시 시작했죠. 서울YWCA에 갔더니 제가 미국에서 살다운 경험이 있으니 국제친선부 위원을 하라고 했어요.

당시에 외국대사 부인들도 많고, 외국 회원들이 많았어요. 직접 케이크를 다 구워서 바자회를 하고, 기금을 마련해서 미혼모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그랬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이셨어요. 시간 약속을 항상 잘 지키고, 모든 일을 책임감 있게 하던 선배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이은영: 지금까지 60여 년 활동해 오시면서, 이사장님께서 Y-틴으로 활동하던 때와 현재의 청소년 활동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노력

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YWCA의 청소년 활동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행자: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소년운동, 대학Y운동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있는 개별 Y-틴 클럽을 하나하나 노크하고, 일대일 관심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여고 Y-틴 출신 회원들끼리 모여서 지금 경기여고 Y-틴 클럽에 1년에 백만원씩 다과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만 한 개의 클럽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역의 한 회원YWCA에서 한두 개의 Y-틴 동아리만 집중적으로 보살핀다면, 전국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지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Y-틴 클럽이 생기고, 또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기독교성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학교 활동이 제한되는 것도 있지만 영성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 놓치지 않고 가야겠지요. Y-틴 활동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면, 세계대회에 참가자격을 주는 등 메리트가 있으면 YWCA에 함께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 YWCA를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다시 찾게 되어 있어요.

이은영: 네, 또 이사장님께서서는 특별히 장학기금을 통해 YWCA 자원지도자들의 리더십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요.

이행자: 서울YWCA에 20년 전에 3천만원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들이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도록 돕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이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정책 입안 현장에서, 지역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여성들에

게 유용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연합회에서 16명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이은영: 이제 한국YWCA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꼭 붙잡고 가야할 가장 중요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나눠주세요.

이행자: 먼저, 실무자와 자원지도자가 두 바퀴가 돼서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가야 합니다. 봉사의 한 축과 이슈 대응의 한 축이 함께 굴러갈 때 서로 간에 끈끈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YWCA 활동이 기쁨으로 하는 봉사가 되어야 하고, 서로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년 8월에 후원회 이사장 임기가 끝나는데, 연합회가 재정을 확충해서 회원YWCA 실무자들의 인건비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비록 정책적인 것은 세련되게 가지 못하더라도, 먼저 회원Y를 살리고, 회원Y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회원운동체는 회원이 줄어들면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Y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 신앙에 기반해 있고, 또 그만큼 연합회가 단단히 서 있어서 그렇겠지요. 회원Y가 연합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늘 회원Y의 노력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주면 좋겠어요.

Y는 참 마약같은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웃음)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발을 들여놓게 되지요. 그래서 Y가 오랫동안 이어온 친목과 봉사의 마음, 공동체 정신, 가족이라는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회원들이 Y에 매력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Y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와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광주YWCA어린이집 “아나바다 장터놀이로 북한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요”



지난 10월 19일(월) 광주YWCA어린이집 원아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아나바다장터 시장놀이에 참여했다. 봄부터 입지 않은 옷과 신발, 책, 장난감 등을 모으는데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 제작한 장바구니를 들고 때론 판매자로 때론 구매자로 가족과 함께

시장놀이에 참여했다. 가면과 가발을 쓰고 즉석 가족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장난감 판매대는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 날 시장놀이를 통해 원아들 모두가 기본적인 경제개념을 배우고, 나눔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희망을 경험했다. 시장놀이의 수익금 전액은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전달했다. 광주YWCA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족들이 평화세상을 향한 꿈과 희망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실천한 것이다. 북한에 사는 친구들과 나누고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광주YWCA어린이집 가족들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정리: 정순영 광주YWCA어린이집 원장)

지난 10월 19일(월) 광주YWCA어린이집 원아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아나바다장터 시장놀이에 참여했다. 봄부터 입지 않은 옷과 신발, 책, 장난감 등을 모으는데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 제작한 장바구니를 들고 때론 판매자로 때론 구매자로 가족과 함께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2015년 10월 1일 ~ 10월 31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15.10.1.-10.31)	강승아, 고세영(청주Y),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민혜, 권순복, 권인택, 권진, 김가현, 김건세, 김경숙, 김경희, 김기동, 김명희,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영자, 김은경, 김일곤,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나윤지,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영수, 박영순, 박용옥,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성동숙, 송록희, 신인숙, 심명자, 심은옥, 안은정, 안정희, 안혜진, 양중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지은, 이찬진, 이행자, 이항재, 이해련, 이해진, 임강숙, 임국아,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운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전현주, 정경란, 정동신, 정 순, 정 용,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주락현, 진인식, 채정희, 최수선, 최지혜, 최형선,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황홍백(115명)	1,771,000
개인 기부	김미, 김행영, 이진용, 최혜실	678,81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성광교회, 약전평강교회, 한양대학교회 여성교회	260,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200,000
회원YWCA	서울YWCA	382,000
교육 및 모금	광복70주년 평화나눔페스티벌, 세계대회	164,828
합 계		3,456,638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원

## 연합회 소식

### 11월 월례아침기도회

11월 월례아침기도회가 11월 2일(월)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김진희 목사(안산대학교 교목, 부천YWCA 전 사무총장)가 ‘공감,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앞둔 영덕 주민들을 위해, 또한 전국 52개 회원YWCA가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에)

### 제28회 YWCA 세계대회

제28회 YWCA 세계대회가 지난 10월 11일(일)부터 16일(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73개국 5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YWCA 대표단은 정대표 6명, 방청대표 13명, 세계YWCA 대표 1명으로 총 20명이 참가했다. 한국YWCA는 평화, 탈핵, 씽크머니 총 3개의 워크숍을 주관했으며, 일본YWCA와 공동으로 제출한 ‘핵에너지와 핵무기 반대’ 결의문이 80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통과됨으로써 세계YWCA 차원의 탈핵운동 확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YWCA 공천위원으로 원영희 실행위원이 당선되었으며, 세계YWCA 이사와 아시아 지역 부회장에 한미미 실행위원이 당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YWCA 세계대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며 2019년 세계대회 개최지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이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에)

###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매주 화요일마다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서울

명동 연합회 앞과 전국 회원YWCA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10월 20일(화) 제81차 캠페인에는 5개 회원Y(광명, 성남, 원주, 익산, 제주)의 신임 사무총장들이 참여했으며, 11월 10일(화) 제84차 캠페인은 목포YWCA 주관으로 진행해 시민 123명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을 했다.

###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원

11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열리는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앞두고 10월 24일(토) 연합회와 서울Y, 경기지역Y(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와 동부지역Y(대구, 부산, 안동)의 실무자 90여 명이 YWCA 탈핵버스를 타고 영덕에서 열린 집회와 거리행진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10월 21일(수)에는 서울 원안위 앞에서 진행된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또한 주민투표가 진행된 11월 11일(수)와 12일(목) 양일간 연합회와 대구Y, 부산Y가 홍보단과 투표소 활동을 지원하며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했다. (자세한 내용은 22쪽에)

### 직업훈련담당 실무자 워크숍

10월 13일(화)부터 14일(수)까지 YWCA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 총 30여 명이 모여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개선 법률안’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해 이해하고 후속 업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5년 제2차 신입사무총장 연수

10월 20일(화) 5개 회원YWCA(광명, 성남, 원주, 익산, 제주)의 신입 사무총장들이 제2차 신입사무총장 연수에 참석했다. 사무총장의 자세와 역할, 회원Y 현안과 제와 비전을 나누고, 탈핵 불의날 캠페인과 기후변화와 젠더 대화모임에 참석했다.

### 제6차 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

제6차 생명비전연구소 콜로키움이 10월 21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사회를 위한 삶의 가치와 방식'(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발제 이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 2015 아태지역 금융 포용성 서밋

10월 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5 아태지역 금융 포용성 서밋이 진행되어 연합회와 회원YWCA 실무자와 강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YWCA의 씽크머니 교육을 세계의 금융교육 전문가와 기관 및 단체 실무자들에게 소개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내년 1월 개최되는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 캠프를 홍보하고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에)

### UNSCR 1325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10월 29일(목)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연합회와 여성평화외교포럼,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한 UNSCR 1325채택 1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열렸다.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 실무자와 서울YWCA 실무자 등 17명이 참석해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채택 15주년의 의미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탈GMO 생명살림 기독교연대 발족식과 포럼

10월 19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탈GMO 생명살림 기독교연대 발족식과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등 기독교사회단체들과 교인들은 유전자조작농식품(GMO)의 위해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GMO로부터 농민, 소비자, 생태계의 안전을 지키는데 마음을 모으기로 결단했다. 포럼 이후 명동 일대에서 거리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연대의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 YWCA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는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11월 5일(목)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상은 김수지 아하가 족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젊은지도자상은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세한 내용은 24쪽에)

### 가사노동 입법화 추진 촉구 공동기자회견

연합회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공동으로 11월 6일(금) 국회 정문 앞에서 '가사노동 입법화 추진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사노동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YWCA · YMCA 기도주간 연합예배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YWCA는 11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YWCA 강

당에서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번 '희망을 위한 YMCA · YWCA' 사람들의 연합예배'는 각 기관의 이사, 위원과 실무활동가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는 '그 곳에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 고난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실천하는 결의를 다졌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요구 YWCA · YMCA 공동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11월 9일(월) 낮 12시 명동 연합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참가자들은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며 명동 일대를 행진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에)

### 비례대표 축소 반대 ·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8월 25일에 결성한 연대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11월 12일(목)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YWCA연합회는 연대에 참여하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정당 지지를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유권자의 투표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에서 충실히 대표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와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배분(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 모금워크숍

11월 12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총 11개 회원YWCA(광주, 논산, 대전, 세종, 성남, 수원, 안동, 안산, 안양, 인천, 전주) 실무자들이 '기부자개발과 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모금워크숍에 참여했다. 3개년으로 계획된 모금워크숍은 2013년 회원Y가 모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거액모금실행준비와 모금방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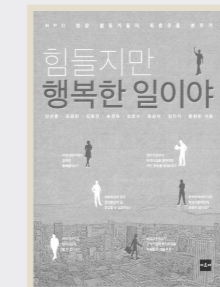
주제로 구체적인 모금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올해는 현재 회원들을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회원중모방법을 재수립하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활용할지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기회로 마련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

연합회는 2012년부터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하는 '다래교실 - 다문화시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1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1박 2일 동안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150명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모여 비전 탐방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30쪽에)

### 신간 소개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야**  
— NPO 현장 활동가들의 좌충우돌 분투기 출간  
지은이: 강성훈 · 김광현 · 김종진 · 송경옥 · 오영수 · 윤상석 · 임진기 · 홍원준 출간일: 2015. 10. 30



2015년, 이 책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야 - NPO 현장 활동가들의 좌충우돌 분투기>는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비영리 영역에서 행복을 찾아낸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집필자들의 글들에 비추어진 비영리 영역의 현장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고, '소진'되는 것 자체는 영리 영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왜 비영리여야 할까?' '나는 왜 이 길에서 있나?' 집필자들에게는 매일이 행복한 길이며, 비영리 영역이 인생의 블루오션이다. 비영리의 벗들과 131명과 함께한 설문조사에서, 비영리 영역의 명사들과 함께한 인터뷰 자리에서, 고단한 비영리 영역의 현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 그들은 나이 불문,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이 길에 도전해보라고 자신 있게 권한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길고 또 행복한 하루였다. 긴 하루가 내게 매일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온 건 정확히 NGO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다."(177면)



북부

강릉YWCA | 정경진 간사

EM교육

10월 12일(월) 신영초등학교 어머니회를 대상으로 EM환경교육을 실시했다. 'EM이란 무엇인가?', 생활 속 EM활용법, EM 발효액만들기, EM천연비누만들기, 재활용비누만들기 순으로 진행했다. 환경살림 실천방안으로 쌀뜨물을 이용한 발효액을 만들어 수질환경 오염의 주범인 가정 내 생활하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환경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었다.



동해YWCA | 안지원 팀장

회원평화축제 및 청소년 어울마당

10월 24일(토) 동해시 소재 무릉계곡 광장에서 회원대회 및 청소년 어울마당을 진행했다. 이번 회원대회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함께 진행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200여 명의 회원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산행과 '청소년 날개를 달다'가 함께 어우러져 축제의 장을 만들었고, 일반인들도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장기자랑을 통해 재능을 뽐냈고, 다양한 체험부스(평화부스, 탈핵부스, 환경부스, 진로부스, 먹거리부스)를 운영해 또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했다.



속초YWCA | 정인숙 간사

애들아 밥 먹자

10월 20일(화) NH농협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지역 내 설악중 학교를 찾아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으로 대상으로 '애들아 밥 먹자' 캠페인을 전개했다. 등굣길 학생들에게 소고기 삼각김밥과 음료 등을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과 우리 쌀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썼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아침밥을 챙겨먹는 건강한 식습관이 널리 확산돼 쌀 소비촉진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밥 대신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면서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 캠페인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우리 쌀도 지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인천YWCA | 최슬기 간사

일본국제교류 북큐슈 방문

김말숙 인천YWCA 회장 외 이사 및 위원, 회원들이 10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2박 3일간 일본과의 국제교류로 북큐슈 지역을 방문했다. 자원순환형 도시사회의 실천 사례교류 및 국제교류의 일환인 후쿠오카YWCA와의 교류 일정을 시작으로 고쿠라교회, 무브센터, 홀리스자립센터 등 기관사찰 및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일본과의 국제적인 교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춘천YWCA | 진소정 차장

사랑나눔 바자회

10월 22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친환경 제품 13종, 공예품 19종, 농수산물 28종 등 회원기증 물품 등으로 다양한 바자회 물품과 소장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조합원 연수

2015년 7월 출범한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동체감 형성을 위해 지난 10월 9일(금)부터 10일(토)까지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으로 1박2일 조합원 연수를 다녀왔다. 이천진 목사(한양대학교 교목)의 강의로 잠자던 영성을 깨우고, 조별 과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매일 각 가정에 돌봄천사로 파견되어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는 모든 조합원들이 이 날 만큼은 마음껏 가을을 만끽하며 지역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협동조합이 되도록 함께 힘을 쓸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26주년 창립기념예배

10월 30일(금) 26주년 창립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차광일 목사(하늘비전교회)의 말씀을 통해 YWCA가 지역 속으로 들어가 지역의 필요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창립예배를 기념하여 지역 안에서 이웃과 작은 나눔을 갖기 위해 전날 이사, 직원들이 함께 모여 불고기를 만들었으며, 예배 후 40가정에 불고기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YWCA | 이종은 간사

애들아 밥먹자

10월 21일(수)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애들아 밥먹자' 행사를 남양주시 와부고와 예봉중 학생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부 실무자와 이사, 위원들이 모여 밤새 작업을 하여 1000개의 주먹밥을 만들고, 다음날 신한은행 직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함께 오렌지주스와 아침밥 먹기 홍보물과 YWCA 리플릿과 함께 나누어 주었다. 또 주먹밥을 나누어 줄 때 학생들이 등교 전 식사를 하는지와 무엇(밥, 빵, 기타)으로 식사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 식사하는지 설문조사(스티커 붙이기)를 진행하였다. 진행결과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결과가 YWCA에서 꾸준한 캠페인을 벌인 결실을 거두었다.



성남YWCA | 전아영 간사

Y-틴 탈핵부스 운영

10월 24일(토)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대축제가 열려 성남Y-틴이 탈핵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 게임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월성1호기 연장 찬반 스티커 투표를 통해 성남 지역 주민에게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Y-틴이 직접 부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리더십도 키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인권 캘리그래피 전시회 진행

'인권으로 소통하는 문화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권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3주간 진행했다. 10월 30일(금) 수원 YWCA 본부를 시작으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9일부터 12일), 수원체육문화센터(16일에서 20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작품들은 영생고와 수원여고 학생 40여 명이 인권교육을 받은 후 직접 그린 작품들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캘리그래피로 표현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회원한마음 체육대회**

10월 31일(토) 2015년 회원한마음 체육대회가 안산강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사 및 실무자, 회원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회원증모운동 결과발표와 함께 우수증모자 시상식을 갖고 이후 부속시설별로 팀을 나누어 릴레이 경보, OX퀴즈, 줄다리기, 풍선기둥세우기 등의 명랑운동회를 진행했다. 어린이, Y-틴 회원부터 70대 회원까지 모두 함께 어울려 땀 흘리고 배려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양YWCA** | 이규숙 팀장  
**여성친화도시 4주년 기념 포럼과 시민토론회**

10월 27일(화) 스칼라티움 안양평촌점에서 여성친화도시 4주



년 기념 포럼과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성옥 안양YWCA 회장의 개회사와 공동주관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한옥 자 원장의 인사말로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포럼으로 연구자의 주제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하였고, 2부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생활 속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그동안 연구자 중심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만 이루어졌던 포럼에서 시민들이 직접 요구를 반영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회가 기획되어 매우 뜻 깊고 흥미로웠다는 참여자들의 평가가 있었다. 시민토론자로 참여했던 대학생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다

문화분과의 시민토론자였던 결혼이주 일본여성은 다문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뿌듯하다고 언급했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생명사랑 녹색 나눔 장터**

10월 16일(금) '생명사랑 녹색 나눔 장터'를 운영했다. 로컬푸드 중심으로 녹색 상품 직거래, 재활용소품을 소비할 수 있는 아나바다,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의류 잡화 코너, 안전한 먹을거리 코너를 운영했으며 의정부 YWCA 소개 부스를 만들어 YWCA의 탈핵 캠페인과 나눔장터의 목적사업인 북한어린이돕기, 양육미혼모인식개선 캠페인 '봄', 청소년 꿈찾기 프로그램 꿈서터 사진전 등을 함께 운영했다.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로 풍성했던 나눔장터 수익금의 일부는 북한지역어린이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중부**

**논산YWCA** | 권연정 간사  
**가을 속으로 떠나는 행복한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월) 30명의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세종 베어트리파크로 가족나들이를 떠났다.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 날 나들이는 테마별 셀카 찍기, 추억의 보물찾기, 수건돌리기 등 다양한 미션을 통해 푸른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전YWCA** | 김지찬 팀장  
**2015 후원의 밤**

11월 6일(금) 오후 7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69주년을 맞은 후원의 밤 행사는 회원 및 후원

자 700명이 참여했으며, 대전맹학교 '하늘소리'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오순숙 대전YWCA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선택 시장과 김인식 대전시의장, 설동호 교육감의 축사, 서정민의 25현 가야금 연주 및 바리톤 허철수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946년 창립된 대전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란 가치 아래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꾸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세종YWCA** | 남선미 간사  
**탈핵 캠페인**

10월 14일(수) 조치원중학교 9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아침밥 먹기 캠페인 '애들아 밥먹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새벽 4시 30분부터 모여 주먹밥을 만들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음료와 함께 나눠주었는데, 반겨주는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하루였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가을밤 산골마을 작은 음악회**

10월 13일(화) 오후 7시 덕산초등학교 교정에서 이름도 정겨운 '산골마을 달빛음악회'를 개최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주관하고, 제천YWCA와 덕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공동주최한 '산골마을 달빛음악회(찾아가는 가족콘서트)'에는 아이들, 학부모, 마을주민 등 250여 명이 모였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클래식, 할아버지 동요밴드, 포크와 아프리카 리듬공연, 비눗방울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덕산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아동들의 동요합창,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모국(필리핀) 동요뿐

만 아니라 덕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지역주민들도 현장에서 직접 출연진으로 참여하여 "한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키운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진정한 보육의 의미를 더한 공연이었다.

**청주YWCA** | 최지경 간사  
**제17회 청주여성영화제**

'여성! 시대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10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4관에서 영화제를 진행했다. 개막작 '위로공단'부터 '제인구달', '밀양아리랑', '내일을 위한 시간', '투 라이프' 등 총 5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청주 YWCA 주최로 추진위원들의 후원 가운데 많은 청주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배우 김진숙과의 만남, 시네톡을 통해 여성영화가 한층 발돋움하는 깊은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여성영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내년에 있을 청주여성영화제 또한 발전하기를 바란다.



**충주YWCA** | 김세희 간사  
**한반도중심고을의 성평등 문화만들기 토론회**

10월 28일(수)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한반도중심고을의 성평등문화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충주시민 77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충주시 공무원, 시의원,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평등한 충주시로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주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한 충주시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되었다.

# 서부

## 광주YWCA | 손유영 팀장

**가사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포럼**  
 광주YWCA 직업개발부는 지난 10월 28일(수) 1층 대강당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포럼'을 실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돌봄을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가사돌봄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돌봄 노동자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남원YWCA | 박희경 팀장

**어린이 성(性)장 놀이터**  
 남원YWCA와 함께하는 어린이 성(性)장 놀이터. 11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어린이 성(性)장 놀이터를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문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번 체험전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청각 활용 및 놀이를 통해 생명 탄생의 신비



함과 우리 몸의 소중함을 배우는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진행됐다.

## 목포YWCA | 박유진 팀장

**추석바자회 수익금 지역사회에 환원**  
 이웃과 함께 하는 '16회 추석바자회 수익금 나눔행사'를 10월 20일(화) 오전 11시 30분에 목포YWCA 3층 강당에서 목포지역의 29개 기관, YWCA이사,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목포시민 1,500여 명이 방문하여 풍성하게 진행된 지난 추석바자회에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을 목포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비인가시설 29개 단체와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북한어린이 분유 보내기 및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에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서귀포시 자유학기 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  
 10월 28일(수) 서귀포YWCA회관에서 '서귀포시 자유학기 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좌용택 교육장의 축사,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의 축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계획 보고, 헌판제막식으로 진행됐다. 좌용택 교육장은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은 매우 중요하고, 오늘 개소를 통해 성공적인 자유학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해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을 위한 체험처 발굴과 학교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진로교사와의 네트워크, 세미나 등의 사업을 통해 진로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Y아카데미 서부지역센터 멘토-멘티 활동보고 워크숍**  
 10월 21일(수) '2015년 Y아카데미 서부지역센터 멘토-멘티 활동보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오전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정기환 레크지도자를 통해 어색했던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멘토-멘티들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오후에는 순천만정원 박람회에서 멘토-멘티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 짝을 이루어 탐방했다. 서로 의지하는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며 추억을 새길 수 있었다. 워크숍 이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멘토링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여수YWCA | 박선주 간사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후원하고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한 2015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10월 28일(수) 흥국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꿈꾸는 여성의 당당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265개 업체가 참여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선보였다. 박람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본인에 맞는 일자리 정보와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 손에 이력서를 들고 여러 부스를 찾아다니며 기업체 채용담당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면접을 가졌다. 행사 당일 참가자 중 541명이 입사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박람회 당일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은 구직자들은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면접 결과를 토대로 취업연계를 위해 추가적으로 이력과 적성에 맞는 구인업체를 지속적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 전주YWCA | 김은진 국장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문화주간 '통일영화제' 개최**  
 10월 29일(목) 국립무형유산원 얼썩마루에서 통일영화제를 진행하였다. 통일영화제는 10월 25일(일)부터 31일(토)까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문화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통일영화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히 탈북청소년 공부방 아이들이 준비한 식전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하였고, 6개 어린이집(전주Y, 신세계, 롬비니, 교동원광, 복지, 정다운)이 전주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이날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이 통일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통일을 염원하고 하루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



## 제주YWCA | 이유리 간사

**2015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10월 29일(목) 오후 2시~5시까지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자와 청년 및 일반 구직자 등 제주도내 구직자 1,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YWCA청년일자리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 제주시니어클럽,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대학교LINC사업단이 주관한 '2015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는 총 102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61개의 현장면접관과 41개의 간접채용관으로 운영되었으며, 60여개의 업체에서 136명이 1차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YWCA청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직희망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취업타로카드 상담, 지문인식적성검사, 캐리커처, 이력서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및 인화 등 취업지원코너를 운영했다.

동부

거제YWCA | 홍윤정 팀장

**음악으로 화합한 지역 어르신들의 축제**  
제2회 거제YWCA 실버합창경연대회가 10월 15일(목)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거제YWCA가 주최, 거제시가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지역에 있는 실버합창단인 거제YWCA청춘합창단·한마음합창단·고현노인대학합창단·늘푸른합창단·시니어합창단·행복늘푸른학교합창단 6팀과 응원단 등 400여 명이 함께 했다. 거제YWCA 실버합창경연대회는 거제시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년기 여가 문화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열리는 행사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

김해YWCA | 배정숙 부장

평생학습·과학축제 참가 및 김해시 평생학습시책 공모 '김해시 표창장' 수상



10월 1일(목) 회원들과 함께 경북 안동으로 친환경생산지 탐방을 다녀왔다.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생산지 체험은 '안전한 먹을거리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생활의 주

체인 여성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함을 지키는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친환경적인 먹을거리와 함께 환경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생산지 체험은 안동YWCA 이원걸 사무총장의 지원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안동 하회마을 등을 탐방하고 돌아오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대구YWCA | 이수빈 간사

**제6회 사랑의 카부츠 베품시장**  
10월 31일(토) 제6회 사랑의 카부츠 베품시장을 개최했다. 카부츠(Car Boots)란 유럽형 베품시장으로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를 판매대로 사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프리마켓을 말하며, 이날 임병헌 남구청장이 특별히 참석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플라워 버킷' 주자로 나섰다. 최정숙 대구YWCA 회장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부츠 베품시장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소외계층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지원하는 대구YWCA착한치과 운영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대학Y 농촌봉사활동



마산YWCA의 경남대학교 대학Y 동아리인 터울거리는 10월

30일(금)부터 11월 1일(일)까지 2박 3일동안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대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돕고, 안전한 먹거리와 로컬푸드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으로 46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Y 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홍보**  
소비자상담실에서는 10월 31일(토)와 11월 1일(일) 이틀간 사천향토음식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사천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미각 테스트 및 나트륨 OX퀴즈, 저염 음식 시식 체험과 나트륨 줄이기 실천 운동 서명과 홍보 동영상 상영했다. 소비자들에게 짜게 먹는 정도에 대한 식습관 안내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1일 권장량을 섭취할 것을 알렸다.



안동YWCA | 강주영 부장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최



10월 23일(금) 안동Y 이원걸 사무총장이 분과위원장으로 있는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진행했다. 안동 목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녹색당 이우진 공동위원장을 모시고 특강을 듣고 지역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패널들이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었다. 안동Y 친환경 위원장인 신윤경 이사의 생활 속 실천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어린이합창단 '찾아가는 자선공연' 펼쳐**  
양산YWCA 어린이합창단은 10월 17일(토) 관내 정신요양병원인 노아병원에서 '찾아가는 자선공연'을 펼쳤다. 이 날은 우리 지역의 취약한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화합과 소통을 이루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양산Y 동아리인 민들레동요학교와 민들레인형극봉사단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양산Y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합창과 연주활동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배워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선공연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울산YWCA | 최은지 간사

'대중교통 이용으로 쾌청한 하늘 만들기' 캠페인



10월 22일(목)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10월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으로 쾌청한 하늘 만들기'가 진행됐다. 울산광역시 공무원, 울산YWCA 실무자,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소하여 쾌청한 하늘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이 새겨

진 헬륨 풍선으로 이색홍보를 하고 울산 시민들을 상대로 '나는 동참의 의미로 주 00일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여조사를 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손수건 스카프 홍보물품과 버스·자전거 이용의날 리플릿을 배부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버스·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온실가스가 감소하여 쾌청한 하늘이 되길 기대한다.

**진주 YWCA** | 김소연 간사

**제9회 아침식탁 캠페인**

10월 20일(화)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청소년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2015 제9회 진주YWCA 아침식탁 캠페인'을 진주중앙고등학교에서 진행했다.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건강을 챙기고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침밥을 정성껏 준비했다. 다음날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아침밥을 나눠주니 기쁨과 행복으로 받는 청소년들의 미소와 손길에 그 모든 수고와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보람과 감동이 느껴졌다.



**창원 YWCA** | 정미영 간사

**나트륨 줄이기 홍보캠페인**



10월 17일(토) 오전 9시 창원용지공원에서 나트륨줄이기 홍보 부스를 진행했다.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라는 슬로건 아래 홍보차량, 롤릿, 미각테스트(짠맛, 단맛), 시식코너, 전시코너, 패넬전시코너를 운영했다.

**포항 YWCA** | 송근선 간사

**아침밥 먹기 캠페인 '애들아! 밥먹자'**

10월 30일(금) 포항 대동고, 중앙고, 예술고 정문 앞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애들아! 밥먹자' 행사를 진행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나눔으로써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격려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학부모,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으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범시민 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2015년 9월부터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환자부담을 보다 덜어드립니다.

## 선택진료 의사 축소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축소하여, 일반의사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환자부담이 줄어듭니다.

###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축소



※ 다만, 환자의 일반의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 1/4(25%) 이상은 일반의사로 두도록 제한

405개 의료기관의 10,387명 선택의사 중 2,314명 감소



- 선택진료의사 22% 감소, 일반진료의사 61% 증가
- 일반의사 진료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
- 선택진료비급여 부담 연간 총 2,212억 감소

## 상급병실 축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대로 환자부담이 감소됩니다.

###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 확대

10개 병상 중 최소 5개 이상 일반병상 운영



10개 병상 중 최소 7개 이상 일반병상 운영



※ 다만,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현행 50% 유지

- 43개 의료기관의 1,596개 상급병상이 일반병상으로 전환
- 대형병원 환자들의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 감소
- 상급병실 비급여 부담 연간 총 570억 감소

